

만해대상
평화부문

인도 로카미트라 법사



로카미트라법사 김태길 교수 이어령 비평가 헤자 스님 로버트 버스웰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지관)는 3월 14일, 제12회 만해대상 수상자로 평화부문 로카미트라 법사(인도불교해방 운동가), 학술부문 김태길 교수(대한민국학술원 회장), 문학부문 이어령 비평가(평론가), 포교부문 헤자 스님(도선사 주지), 로버트 버스웰 교수(미국 UCLA) 등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수여한 실천·예술 등 6개 부문이 4개 부문으로 조정된 것이 올해 특징이다.

평화부문 수상자 로카미트라 법사(본명 제레미 구다·62)는 1947년 런던 태생으로 교직에 종사하다 불교에 귀의했다. 그는 1979년부터 인도에서 현재까지 30여년간 인도사회의 카스트제도 철폐와 불교개종운동 등에 헌신해 온 불교 인권운동가다.

학술부문 수상자인 김태길 교수(前 서울대 교수·88)는 경성대학교(현 서울대)에서 윤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이화여대, 서울대 등에서 교수 생활을 했다. 한국 철학회와 철학연구회 회장, KBS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우리나라

학술 김태길·문학부문 이어령씨 선정 포교부문 헤자스님·버스웰 공동 수상

라 윤리학의 태두로 불린다. 김 교수는 윤리학의 이론적 토대 마련과 현실 적용을 동시에 이룬 공적이 높이 평가됐다.

문학부문 수상자인 이어령 교수(前 문화관광부 장관·75)는 1990년부터 1991년까지 초대 문화부장관을 역임했다. 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여러 신문의 논설위원을 지냈고, <장군의 수업> <환각의 다리> 등 다수의 문학작품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1999년 새천년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새천년을 맞아 뉴패러다임과 국제적인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도 받았

다. 양승태 심사위원장(대법관)은 "이어령 교수는 한국 문화 발전은 물론 한국 문화와 역사를 새롭게 하는 데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어령 교수가 보여준 문화적 업적과 문화사적 실천성과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포교부문 수상자 헤자 스님은 현재 청담학원 이사장, 해명복지원 이사장, 풍경소리 대표이사, 불교신문 대표이사 등을 맡고 있다. 또 스님은 2006년 9월부터 108년 사순례기도회를 이끌며 21세기 한국 불교 신행문화의 새 이정표를

제시해 다양한 계층 포교에 앞장섰다는 평을 받는다.

심사위원인 김재홍 원장(만해학술원)은 "헤자 스님의 활발한 포교 활동과 업적은 2008년 만해대상 포교부문 수상자로 손색이 없다. 포교, 역경, 도제양성 등 중단 3대 지표사업을 감안할 때 헤자 스님의 업적은 의미가 더욱 크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포교부문 공동 수상자인 로버트 버스웰 교수(54)는 한국학을 전공하고 UCLA 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과 교수 및 UCLA 불교학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한국학 전공자로는 최초로 2008년부터 2년 임기의 미국 아시아 학회(AAS,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학계에서는 중국학과 일본학이 주도하는 미국의 동양학 분야에서 한국학 전공자가 학회장이 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한다.

한편 부문별 수상자의 상금은 3000만원이며, 만해대상 시상식은 8월 12일 인제 백담사 만해마애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동성 기자 cetana@buddhapia.com

봄맞이 대중강좌 ‘풍성’

불교인재개발원·불교문화연구소서 진행

강좌에도 명품(名品)이 있을까? 공신력 있는 단체의 짜임새 있는 구성과 신선한 기획으로 명강사에 의해 진행되는 강좌를 우리는 '명품 강좌'라 부른다. 봄을 맞아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원장 김응철)과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안성두)가 잇달아 내놓은 봄맞이 대중강좌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보자.

☞부처님 생애에서 배우는 지혜=불교인재개발원은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부처님 일대기를 통해 배우는 불자 수행'을 주제로 3월 24일부터 대중강좌를 연다. 5월 28일까지 불교인재개발원 교육관에서 매주 1회씩 총 8차례 열리는 강좌는 부처님의 생애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특징.

▲3월 24일: <자타카>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부처님의 전생기 ▲31일: 부처님의 탄생부터 출가 전까지를 다루는 탄생기 ▲4월 7일: 29세 출가 후 35세 성도 전까지의 출가수행기 ▲14일: 깨달음의 의미를 설명

하는 성도기 ▲21일: <초전법륜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초전법륜기 ▲28일: <아함경>으로 풀어보는 교화전기 ▲5월 19일: <아함경>으로 풀어보는 교화후기 ▲26일: <열반경>을 중심으로 본 열반기 순으로 진행된다.

강좌의 또 다른 특징은 봉사활동을 통해 배움을 확장하는 시간이 마련된 점이다. 4월 16일과 19일은 나눔으로 화합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노숙자를 만난다. 나눔으로 화합하는 두 번째 시간인 5월 21일과 28일에는 독거노인에 대해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강사로는 불교인재개발원 원장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와 권기원 교수(위덕대), 황순일 교수(동국대), 이태승 교수(위덕대) 등이 참여한다.

한편 불교인재개발원은 개강에 앞서 3월 2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인 '불교인재개발원 개강 기념법회'를 비롯한

다.(02)735-2428

☞불교학의 대중적 이해=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학연구소는 '불교를 보는 여러 시선들'이라는 주제로 불교아카데미 시민강좌를 연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금강선원 큰법당에서 열리는 강좌는 3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허성만)의 '인문학'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헤자 스님(금강선원 원장)을 비롯해 안성두(금강대), 정영근(서울산업대), 김전환·석길갑(금강대), 이주형(서울대), 류제동(금강대), 조성택(고려대) 교수가 강의한다.

불교문화연구소 김성철 교수는 "국내 정상의 불교학자들이 펼치는 수준 높은 불교학 강의와 소장학자들의 참신한 시각을 만날 기회"라고 강좌 의의를 밝혔다.(041)731-3605 조동성 기자

인터넷언론 '불교투데이' 창간

발행·편집인 항적 스님

불교인터넷언론 '불교투데이(대표 항적)'가 3월 18일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매체포교를 시작한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재 모인일 무량회에 기반을 둔 불교투데이(www.bulgyotoday.com)는 항적 스님(선봉사 주지)이 발행인 겸 편집인, 태연 스님(약사사 주지)이 재정이사, 주경 스님(서산 부석사 주지)이 주간을 맡아 운영한다. 주경 스님은 3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혜와 향기가 있는

언론'을 사시(社是)로, 부처님 법에 근거한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창간 의의를 밝혔다.

이어 스님은 "총재 모임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정치적인 색채는 띄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하고 선정적인 폭로·정쟁보도 대신 수행과 포교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개소식은 18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837호에서 열린다.(02)738-0079 여수령 기자

불교방송 영담 스님 불교TV에 통합 제안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이 영상포교 활성화를 위해 불교TV와 통합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영담 스님은 3월 14일 불교방송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방송은 영상사업 진출을 모색해 오던 중 지난 2월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을 통해 공식적으로 통합을 제안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새로운 영상포교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지상파 사업자와 케이블 채널 사업자의 특성을 살려 통합을 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담 스님은 "두 매체가 통합될 경우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의 상호 교환이 가능해져 인력 활용의 극대화를 통한 제작비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불교문화·디지털 상품 다 모였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공모전 심사결과 발표

불교문화를 활용한 문화상품과 디지털콘텐츠가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의 공모전을 통해 다양하게 선보였다.

올해 처음 시행된 '제1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에서는 유성(30·경기도 인천)씨의 작품 '연화문 백자조롱, 죽림 백자수지, 백련유백자기'가 대상에 선정됐다. 유씨의 작품은 물레를 이용해 제작한 수(手)작품으로, 연꽃을 표현한 효룡과 대나무의 정정함을 담은 불형아리, 연꽃을 응용한 다관 등이다. 심사위원단(위원장 최승헌)은 "연, 꽃, 죽림 등을 사용해 자연의 느낌을 최대한 살린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문화상품부문 150개, 제품디자인 부문 68개, 아이디어 부문 9개 등 총 227개의 작품이 응모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우수상에 문화상품 부문 김민지씨의 '선(禪)', 제품디자인 부문 남상우·김민수씨의 'HALO'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장려상 4작품과 특선 8작품, 입선 27작품 등도 배출됐다. 시상식은 3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리며 31일부터 4월 5일까지 기념관 1층 로비에서 수상작품 전시회가 마련된다.

한편, 제4회 불교문화디지털콘텐츠 공모전에서 플래시애니메이션 '어느 도둑의 이야기'가 대상을 차지했다. '어느 도둑의 이야기'는 공

주 갑사에서 펼쳐지는 도둑의 이야기를 통해 '물질적인 욕심보다 중요한 것은 참된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를 전하는 플래시애니메이션이다. 공주대 만화학부에 재학 중인 노윤식씨와 선후배 7명으로부터 '우우우'라는 팀이 기획부터 제작까지 3개월에 걸쳐 완성한 작품이다.

우수상에는 플래시애니메이션 부문의 박정욱·김선미(TOONFAC)씨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서-Templestay'와 김세웅씨의 '불신(佛身)'이 선정되었다. 이 밖에 장려상, 특선, 입선 선정작도 발표됐다. 시상식은 3월 3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며, 수상작 전시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국제회의장 로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제1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대상(사진 위)과 제4회 불교문화디지털콘텐츠 공모전 대상작 '어느 도둑의 이야기'.

행된다. 자세한 공모전 심사 결과는 사업단 인터넷 홈페이지(www.templesta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수령 기자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할 일 없이 청소하는 물걸레 로봇청소기 **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www.mamirobot.co.kr

NAVER 7월 15일 마미로봇 추천상품

조계종 안양불교문화원·안양불교대학 신축불사 안내



중생 고통 보듬는 지장도량
엘리트 불자 육성 교육도량
이웃의 행복위한 행복도량

귀의 삼보 하옵고
지장선원·안양불교문화원·안양불교대학은 불타의 해명과 조계종 중지를 봉대하며 불타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전파와 불자님들의 교육 및 사회 복지 사업을 위하여 신축불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극락정토 안양국에 세워질 도심속의 전법도량 신축불사에 부무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덕 지으시고 세계생생 부처님 품안에서 구경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원불보안 및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에게는 돌아가신 후 영구위패를 봉안하여 사십구재와 기제사, 명절차례를 세계생생 모셔드리며 공덕비에 이름을 새겨 매일 천도 기도해 드립니다.

- 동참방법 : 신축불사에 동참을 원하시는분은 안양불교문화원 사무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안양불교문화원 사무처 1588-1936 / 080-449-9500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401-248474 안양불교문화원
국민은행 620601-01-131405 지장선원
농협 170888-51-025398 안양불교문화원
- 홈페이지 : www.abccenter.or.kr
- E-mail : abccenter123@hanmail.net

조실 지관 회주 세민 주지 현호 이사장 심정구 수석교문 이필상

- 건축 개요
- ▷ 대지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12-10, 11, 12번지
- ▷ 대지면적 : 1260㎡(382평) ▷ 총면적 : 11,322㎡(3,425평)
- ▷ 건물규모 : 지상 8층, 지하 5층 ▷ 건축기간 : 2008. 4월 ~ 2009. 9월